6월 6일(월) / 전4-6

▶**내용요약**: 4장은 인생의 고달픔을 기술하고 지나친 욕심을 내서는 안될 것을 교훈한다. 이어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질 것과 출세의 무가치함을 알려준다. 5장은 인생의 바른 태도 3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질 것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것을 제시한다. 6장은 인생에서 허무한 것들로 재물과 부요를 가지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등이 언급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 )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4장)

▶**생각하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5:10)고 말씀한다. 재물의 한계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인생의 만족과 목표를 두고 있는가? 말씀대로 이세상의 재물이나 부요 등은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6월 7일(화) / 전7-9

▶**내용요약**: 7장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가르치는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8장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교훈을 준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9장은 인간이 가진 지혜의 유한함을 알려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이루어짐을 기술한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되,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질문**: 우매자의 마음이 혼인집에 있다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떤 집에 있다고 하는가?(7장)

▶**생각하기**: 전도자는 본문에서 인생이 한편으로는 헛되고 허무하다고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염려나 걱정보다는 자신이 베푸신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며 즐기도록 하자!

6월 8일(수) / 전10-12

▶**내용요약**: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잠언과 비슷한 형식으로 기술된다. 10장은 사람이 어리석은 행동에서 떠나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한다. 11장은 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이 필요한데 비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임을 가르친다.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사람의 본분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본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질문:**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12장)

▶**생각하기**: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심지어 많은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으며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12:12)고 주장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지 않은 학문이나 공부는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시절을 보내는 우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도록 하자.

6월 9일(목) / 아1-4

▶**내용요약**: 아가서의 아가는 원어로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란 뜻을 가진다. 솔로몬이 지은 여러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노래인 것이다. 이처럼 아가서는 솔로몬이 부른 사랑의 노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묘사한다. 솔로몬이 신랑, 술람미 여인이 신부가 되어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쁨과 아름다움, 사랑으로의 초대가 기술된다.

▶**질문**: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묘사하기를 가시나무 가운데 어떤 꽃과 같다고 묘사하는가?(2장)

▶**생각하기**: 술람미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1:5)라고 한다. "게달의 장막"은 게달의 후손이 살던 곳으로 검은 염소가죽으로 만든 평범한 장막을 말한다. 술람미 여인은 비록 검은 피부를 가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왕의 휘장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이다.

6월 10일(금) / 사1-4

▶**내용요약**: 이사야서는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뜻을 가진다. 1장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종교행위만을 일삼으며 배교와 반역의 길로 행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이 생생히 묘사된다. 2장은 장차 올 메시아시대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선언한다. 3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며 4장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한다.

▶**질문**: 무엇이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는가?(1장)

▶**생각하기**: 이사야서의 시작은 가식적인 종교행위를 일삼는 유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탄식하신다. 현재 우리의 예배와 기도생활은 어떠한가? 우리도 혹시 유다와 같이 신령과 진정이 아닌 헛된 제물과 가식적이고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6월 11일(토) / 사5-7

▶**내용요약**: 5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온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유다를 비판한다. 6장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영적 그루터기를 남기실 것을 말씀하신다. 7장은 아하스 왕 때에 유다가 당한 위기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앗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과 그 참상이 예언된다.

▶**질문**: 하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떤 포도가 맺혔다고 한탄하시는가?(5장)

▶**생각하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6:8)말씀하시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다. 이 시대에도 자신의 일군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의 응답과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6월 12일(일) / 사8-10

▶**내용요약**: 8장부터 12장까지는 연속된 하나의 설교이다. 8장은 앗수르의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곧 멸망당하며 유다 역시 큰 혼란에 빠져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다. 이런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을 선포한다. 9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7절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으로 그 약속의 내용은 메시아의 강림으로 큰 영광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8-21절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온다. 10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자 사용한 도구인 앗수르가 교만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앗수르도 심판받을 대상임을 말씀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 )이 이를 이루시리라"(9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자 징계를 위해 앗수르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앗수르는 아무리 강성하고 힘이 강해도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를 모르는 앗수르는 교만해져서 10장 15절 말씀처럼 도구인 주제에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일군들이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존재들이기에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는 성서인들이 되자.